

중국 동북진흥정책에 따른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네트워크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이 장 섭*

목 차

- | | |
|-----------------------------|---------------------|
| I. 서 론 | Ⅲ.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
| Ⅱ. 흑룡강성의 경제환경과 조선족 사회의 경제활동 | Ⅳ. 요약 및 결론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중국정부의 동북진흥정책에 따라서 우리기업의 동북 3성 진출에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지연, 업연, 물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이 중국내의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비율이 중국내의 다른 지역 조선족기업보다는 적었으며 교류내용은 판로개척이나 기술제휴, 사업정보교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교류내용을 보면 주로 판로개척과 기술제휴, 원재료나 제품의 조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교류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써 이는 다른 지역 조선족기업과 비교 시 현저히 낮은 비율임이 나타났다. 넷째,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과는 강한연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으로써 한국기업의 동북진흥계획 참여나 내수시장 확장에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만의 네트워크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국동북진흥정책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주제어 :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 중국 동북진흥정책, 중국기업, 한국투자기업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중국의 경제력은 급성장하였다. 1979년 1,766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국내 총생산액(GDP)은 2009년엔 4조 9,855억 달러로 28배 넘게 늘어났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중국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0.3%를 기록하며 39조 7,983억 위안에 달해 2010년 GDP 통계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이 확실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에 들어서서도 중국의 중앙정부는 서부 대개발에 이어서 동북지역경제 부흥에도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동북지역경제 부흥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의 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공업 주도발전 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중공업 발전 모델에 대한 수정을 통해 그 동안 긍정적 효과를 지녔지만 현재는 자원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력, 고급 철강, 화학원료,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공업 위주 공업화는 원료, 중간재 등 중공업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국산 보다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공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¹⁾

흑룡강성의 경우, 2009년 4월 하다치 공업지대 건설구, 동부 석탄전기화기지 건설구 등 '8대 경제구' 건설계획이 정식 비준을 받으면서 지역발전의 로드맵이 가시화하였다. 이와 함께 흑룡강성은 '10대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조치도 확정하였다. 즉 5,000만 톤 식량생산 프로젝트, 사회주의 신농촌건설프로젝트, 노후공업기지 개조프로젝트, 중점공업프로젝트 건설공정, 현대교통망 건설프로젝트, 무역관광 종합개발프로젝트, 과학교육인재 양성·부성 프로젝트, 생태환경 건설보호프로젝트, 3우(양호한 서비스·질서·환경) 문명도시건설프로젝트 및 국민생활보장 개선프로젝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²⁾.

한편 중국정부가 동북 3성 진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국이 바로 한국과 일본인만큼 우리기업의 동북 3성 진출에 있어서는 투자협상단계에서 우리측이 비교적 큰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수준이 높은 동남연해지역에서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동북 3성 지역은 외자우대조치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방침이어서 우리기업의 진출대상지로써 고려

1) 강승호,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LG경제연구원, 2004. pp.2-3.

2) 최우길, “중국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 15권 4호, 2010. pp.43-44.

가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동북진흥과 우리기업과의 득실관계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즉 주요 프로젝트에 직·간접 참여함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의 성공으로 경제규모가 커짐으로써 교역의 증가와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는 점 등이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요인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이 지역 핵심산업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다는데 있다³⁾.

우리에게 있어 동북은 지리적 근접성, 조선족동포의 존재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장벽 등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 또 중국에의 접근성 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많은 화교계의 진출도 적은 편이므로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남, 화동과 같이 부품과 자재의 소싱이 원활한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북지역 내 생산 입지선택은 다른 지역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주는 기회와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따라서 위협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고도의 해법을 제시해야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에는 200여만 명의 조선족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 3성과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 등 대도시에서 자영업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후죽순처럼 힘차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사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중국조선족기업 수는 1만 7천 5백여 개로 집계됐으며 이 숫자는 중국개혁개방 20여년간 조선족기업들이 상당한 자본축적을 거쳐 도시 중심의 새로운 산업화시대에 진입하고 제반 한인상권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여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 한국기업은 조선족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조선족사회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흑룡강성지역 즉 하얼빈시(哈爾濱市), 목단강시(牡丹江市) 등 10개 시와 동녕현(東寧縣) 등 3개 현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특성과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의 동북 3성 진흥정책에 따라 동북 3성에 진출하려는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북 3성 진흥정책이나 수출, 수입, 투자 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조선족경제와 경영활동 및 네트워크 관련 연구로써 이장섭(2011), 임채완·이장섭 외

3) 장상해, “중 동북진흥, 한국에 기회인가?”, 『China Observer Weekly』 72호, 2005, p.2.

〈동북아연구〉

(2007), 이장섭·임채완 외(2006), 최용용·임채완·이장섭 외(2005), 김시중(2003), 윤인진(200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장섭(2011)은 중국 흑룡강성의 하얼빈시(哈爾濱市), 목단강시(牡丹江市)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조선족기업인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자료를 통하여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자료로써 중국 동북개발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 네트워크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임채완·이장섭 외(2007)는 중국의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하여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 연구하였다. 즉 중국조선족기업들의 네트워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파악하였으며 나아가서 조선족기업들의 네트워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상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중국조선족기업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나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가 빠졌다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이장섭·임채완 외(2006)는 중국의 5개 지역 즉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조선족기업의 성장과정과 경영활동을 분석하였다. 즉 조선족기업의 성장과정과 조선족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및 수출, 수입, 투자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의 대비를 통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선족기업을 표본추출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선족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연구를 못했다는 점이다.

최용용·임채완·이장섭 외(2006)는 연변(延邊), 심양(瀋陽), 하얼빈(哈爾濱), 북경(北京), 청도(靑島)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과 조선족 자영업자의 경영실태를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조선족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한 연구로써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나 방대한 모집단에 비하여 표본추출이 빈약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시중(2003)은 중국 내 조선족의 인구이동이 조선족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파악하였으며 개혁시기 이전의 조선족사회의 환경과 개방시기 중국 내 조선족의 변화를 주시했다. 또한 경제활동 변화에 따른 조선족기업의 태동과 새로운 세대의 조선족기업가의 등장을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최근의 문헌 등을 통하여 밝혀냈다. 경제적 관점에서 조선족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논문은 조선족 경제활동연구라는 관점에서 선구적 연구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전문가의 인터뷰와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족기업의 실체와 경영활동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윤인진(2002)은 재외동포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재외동포 모국투자의 현황과 모국투자의 저해요소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합법적인 국내취업 및 연수 기회를 통하여 시장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며 한국에서 번 돈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한국공단을 조성하여 조선족기업과 중국진출 한국기업간의 네트워크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조선족과 한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한정된 방안을 제시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 대도시에서 태동하여 성장하는 조선족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설문조사자료 또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였다.

II. 흑룡강성의 경제환경과 조선족 사회의 경제활동

아래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을 보기로 한다. 즉 흑룡강성의 인구추이와 주요 공산품 생산추이, 흑룡강성 조선족인구의 정황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흑룡강성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을 개관하고자 한다.

1. 흑룡강성의 경제환경

1) 인구 추이

흑룡강성의 인구는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2008년 말 기준으로 인구출생률은 7.9%이고 사망률은 5.7%로써 인구자연성장률은 2.2%이다⁴⁾. 인구수는 3,825만 명으로써 그중 도시인구가 2,119만 명으로 55.4%를 차지하며, 농촌인구가 1,706만 명으로써 44.6%

〈표 1〉 흑룡강성의 인구 추이

(단위: 만명)

구분	인구	남자	여자	농업인구	비농업인구
2000	3,807	1,946	1,861	1,930	1,977
2004	3,817	1,938	1,879	1,802	2,014
2005	3,820	1,933	1,886	1,792	2,028
2006	3,823	1,943	1,881	1,778	2,045
2007	3,824	1,931	1,893	1,763	2,061
2008	3,825	1,933	1,892	1,706	2,119

출처 : 中國國家統計局, 『黑龍江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재인용

4) 민유성, 『중국 동북 3성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사례』, 한국산업은행 심양사무소, 2009, pp.200-201.

이다. 또한 남자는 1,933만 명으로 50.5%를 차지하고 여자는 1,892만 명으로써 49.5%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흑룡강성의 인구가 그다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비농업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공산품 생산 추이

흑룡강성의 주요 공산품 생산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 즉 공업의 부가가치는 3,445억 위안으로 13.1% 성장하여 6년 연속 13%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국유 및 국유가 지분 참여한 기업의 부가가치는 2,837억 위안으로 12.9% 성장했고, 주식회사의 부가가치는 2,821억 위안으로 13.0% 성장했으며, 집단소유기업은 48억 위안으로 12.2% 성장했

〈표 2〉 흑룡강성 주요 공산품 생산추이

	단위	2003	2006	2007	2008
칼라TV	만대	0.9	0.6	1.7	0.8
자동차	"	20	28	26	21
석탄	만톤	6,653	7,899	7,997	8,185
원유	"	4,840	4,341	4,170	4,021
전력	억kw/h	487	632	682	719
철강	만톤	166	315	436	475
시멘트	"	1,063	1,456	1,615	1,968

출처 : 中國國家統計局, 『黑龍江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재인용

다. 경공업의 부가가치는 422억 위안으로 13.8% 성장했고, 중공업의 부가가치는 3,023억 위안으로 13.0% 성장했다. 기업 규모를 보면 중대형 기업의 부가가치는 3,041억 위안으로 13.0% 성장하였고, 소형기업의 부가가치는 404억 위안으로 13.9% 증가하였다. 장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등 4대 기간산업의 공업생산액은 6,541억 위안으로 규모이상 공업의 89.1%를 차지했으며 이익은 1,390억 위안이 달성되었다. 주요 공산품의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석탄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전력 및 시멘트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 공업 수익성은 대폭 성장하였는데 '08년 규모이상 지방 공업의 경상이익은 352억 위안으로 32.5% 성장하였고, 이윤은 176억 위안으로 29.9% 증가하였다. 건축업이 줄곧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438억 위안으로 28.1% 성장하였다. 자산등급 3급 이상의 건축기업이 이룩한 이윤은 9억 위안으로 23.2% 성장하였다. 건물 공사면적이 3,992만m²에 달하였는데 그 가운데 입찰을 거쳐 도급을 맡은 건설사업의 면적은 전체의 76.3% 차지하였다.

5) 민유성, 2009, 위의 책, p.207.

2. 흑룡강성 조선족사회의 경제활동

1) 흑룡강성 조선족인구의 현황

다음으로 흑룡강성 조선족인구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즉 흑룡강성에 분포된 조선족인구는 길림성 다음으로 많은데 흑룡강성 조선족 총인구는 388,458명이다. 그중에서 목단강(牡丹江)지역에 분포된 조선족의 수가 가장 많은데 그 인구는 120,363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인구의 30.98%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하얼빈시(哈爾濱市)는 조선족 수가 119,883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 총인구의 30.86%이며 계서시(鷄西市)의 조선족인구는 50,580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 총인구의 13%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치치할(齊齊哈爾)에 16,806명, 가목사(佳木斯)에 26,558명, 흑하(黑河)와 수화(水和)에 17,577명, 학상(鶴翔)·쌍압(雙鴨)에 13,791명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흑룡강성에서 도시에 살고있는 조선족은 134,938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총수의 34.7%를 차지한다. 연령구성은 비교적 젊은데 주로 교원, 간부, 기술인원, 서비스 등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조선족 도시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하얼빈시(哈爾濱市)인데 그 인구는 62,459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 도시총인구의 42.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목단강시(牡丹江市)인데 인구는 57,863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도시 총인구의 39.3%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조선족 도시인구는 5,000~7,000명 사이이다.

개혁개방 후 농촌의 많은 노동력이 중국 각 지역이나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흑룡강성의 조선족들은 대부분이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강원도의 후손들이여서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또한 중국내 연해지구 즉 북경(北京), 천진(天津), 청도(靑島), 상해(上海), 광둥(廣東), 심수(瀋水) 등지에도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각 지역으로 진출한 노동인구는 53,652명이고 한국,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나간 노동인구는 56,481명으로써 도합 110,133명이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

2) 흑룡강성 조선족의 경제활동

2000년도의 전국인구 전반적 조사자료에 의하면 흑룡강성 각 업종의 조선족 재직인구는 171,779명이다. 그중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00,516명으로써 전 성 조선족 업종인구수의 58.51%를 차지하였으며 채취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37명으로써 1.13%를 차지하였고, 전력, 석탄가스, 수돗물 생산과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526명으로써 0.89%이다. 그리고 지질탐사와 수리관리에 종사하는 인구는 600명으로써 0.35%를 차지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200명으로써 7.1%를 접하였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6,242명으로써 3.63%, 교통운수와 우정통신업에 종사하는 인구

6) 류충걸·김석주·김화 『흑룡강성 조선족 인구와 경제』, 연변인민출판사, 2008, pp.35-38.

〈동북아연구〉

는 4,495명으로써 2.62%, 도매, 판매, 무역, 음식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7,200명으로써 10%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에 종사하는 인구는 274명으로써 0.16%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58명으로써 2.54%, 체육과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구는 3,168명으로써 1.84%, 교육, 예술, 방송, 신문, 출판 등 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48명으로써 5.52%, 과학연구와 종합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621명으로써 0.32%, 금융, 보험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432명으로써 0.83%를, 당정기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421명으로써 3.16%를,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는 2,305명으로써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술한 통계내용을 1990년대의 통계자료와 비교해보면 모든 업종의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다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⁷⁾.

제5차 전국인구 전반적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조선족 재직인구는 171,779명인데, 그중 기술인원이 1,830명으로써 전성조선족 재직인구의 1.07%이고 당정기관, 당과 군중조직, 기업과 사업단위의 인원이 4,586명으로써 2.67%를 차지하며 사무인원과 유관 인원이 5,823명으로써 3.9%, 서비스업 인원은 20,458명으로써 11.98%,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노동자와 수리생산 인원이 약 10만여 명으로써 58.24%를 차지했으며 생산노동자, 운수노동자와 유관 인원이 21,369명으로써 12.44%를 차지하고 기타 노동자가 1,047명으로써 0.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다음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네트워크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흑룡강성의 조선족 집거지역인 하얼빈시(哈爾濱市)와 목단강시(牡丹江市) 등 10개 시와 동녕현(東寧縣) 등 3개 현 지역이며 설문대상은 10개 시와 3개 현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기업이다⁸⁾.

7) 류충걸·김석주·김화, 2008, 위의 책, pp.39-41.

8) 여기서 말하는 조선족기업이란 비국유기업으로써 개체호(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 8인 이상의 사영기업이거나 집체소유제기업(도시집체기업, 농촌집체기업), 연영기업(국유·집체연영, 국유·사영연영, 집체·개인기업연영), 주식제기업(유한책임공사, 주식유한공사)으로써 조선족이 동사장이나 총경리로 있거나 또는 회사지분의 51%이상을 소유한 실질적인 지배주주를 말한다.

조사기간과 설문지 회수 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차적으로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24일까지 흑룡강성 하얼빈시(哈爾濱市)를 중심으로 조선족기업을 방문하여 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2차로 50부의 설문지를 흑룡강신문사에 의뢰하여 2009년 8월 31일에 33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회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53부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하기위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의 인구통계연감에 의하면 2000년 말 기준으로 흑룡강성조선족 호적 인구는 38만 8,458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흑룡강성의 조선족업체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약 2,000개 정도이고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이며 제조업은 약 20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또한 흑룡강성조선족상공회에서 대표적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개해놓은 자료에 의하면¹⁰⁾ 회원사는 약 50여 업체이며 업종은 주로 제조업, 무역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관광업, 정보기술업, 부동산개발업 등이고 최고경영자의 70% 이상이 30~40대의 젊은 기업인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표본은 정확히 조사해놓은 최근의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흑룡강성조선족상공회에서 소개해놓은 50여개의 회원사 중 50% 이상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26개) 나머지 시나 현은 지역 조선족기업협회나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임의로 추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는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이 200여만 명밖에 안 되는 조선족 및 조선족기업에 대한 자료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다¹¹⁾.

한편 설문지는 크게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조선족기업의 일반현황, 중국 내 기업 및 해외(한국포함)기업과의 네트워크, 중국 내 기업 및 해외(한국포함)기업과의 수출(기술이전), 수입(기술도입), 투자, 그리고 조선족기업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함으로써 경영자의 연령과 고향 및 성별이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에는 통계자료와 문헌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와 면담자료도 이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중국 통계출판사에서 출판된 통계연감을 사용하였으며, 문헌자료는 중국 및 조선족과 관련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신문, 잡지 등을 참고하였다.

-
- 9)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에서 2006년 8월에 출간한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라는 책자에 흑룡강성 한겨레사회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0) 흑룡강성조선족상공회에서 2010년 3월에 출간한 흑룡강조선족기업가 “풍채”라는 책자에 50여개의 흑룡강성조선족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11) 이장섭,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 16권 1호, 2011, pp.98-100.

2. 일반현황

1) 경영자의 인적사항

(1) 연령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중 표본추출된 53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연령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40대가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표 3〉 흑룡강 조선족기업 경영자의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계
빈도수	1	7	20	19	3	3	53
비율	1.9%	13.2%	37.7%	35.8%	5.7%	5.7%	100%

는 50대가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은 40~50대가 73.5%를 차지함으로써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30대도 13.2%를 차지함으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인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신지역

〈표 4〉 흑룡강 조선족기업 경영자의 출신지역

구분	하얼빈시	상지시	목단강시	아성시	동녕현	밀산시	해림시	영안시	탕원현	수화시	오상시	집현현	가목사시	기타	합계
빈도수	26	3	6	1	1	2	3	1	2	1	1	1	2	3	53
비율	49.1%	5.7%	11.3%	1.9%	1.9%	3.8%	5.7%	1.9%	3.8%	1.9%	1.9%	1.9%	3.8%	5.7%	10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인들 중 표본추출된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출신지역이 어디인지를 설문하였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하얼빈시(哈爾濱市)가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단강시(牡丹江市)가 11.3%, 해림시(海林市)와 상지시(尙志市)가 각각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인들은 하얼빈시(哈爾濱市)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목단강시(牡丹江市)와 상지시(尙志市), 해림시(海林市)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2) 설립연도

〈표 5〉 흑룡강 조선족기업의 설립연도

설립연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응답	계
빈도수	11	13	3	2	5	4	6	4	3	1	1	53
비율	20.8%	24.5%	5.7%	3.8%	9.4%	7.5%	11.3%	7.5%	5.7%	1.9%	1.9%	10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의 설립연도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 이전 설립이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995년도 이전이 20.8%, 2005년도가

12) 이장섭, 앞의 논문, 2011, pp.100-101.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은 2000년도 이전에 가장 많이 창업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한중수교 직후인 1995년도에 창업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회사형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의 회사형태를 보면 응답기업의 77.4%가 사영독자기업이며 다음으로 기타가 17%인 것으로 응답

〈표 6〉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형태

회사형태	사영독자기업	사영합자기업	사영합작기업	기타	계
빈도수	41	2	1	9	53
비율	77.4%	3.8%	1.9%	17%	100%

되었다. 즉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의 회사형태는 대부분이 사영독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영합자기업(3.8%)이나 사영합작기업(1.9%)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가 차지하는 17%의 기업은 조선족기업인들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국영기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종업원 수

〈표 7〉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종업원 수

종업원 수	10인 이하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500인 이하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계
빈도수	8	12	14	9	9	0	1	53
비율	15.1%	22.6%	26.4%	17%	17%	0%	1.9%	10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의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문하였다. 왜냐하면 종업원 수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 조선족기업들은 종업원이 50인 이하(26.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20인 이하(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인 이하도 17%, 500인 이하도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계한상연구단 조사(2005)에서 중국 5개 지역 즉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에 대한 종업원 수를 조사한 비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5개 지역 평균 종업원 수를 보면 50인 이하가 27%, 20인 이하가 22%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종업원 수와 거의 유사하였다¹³⁾.

3. 네트워크 실태

다음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즉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 한국에 있는 기업, 중국기업, 해외외국기업

13) 이장섭, 앞의 논문, 2011, pp.101-102.

(한국기업 제외)과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1)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1) 상호협력이나 교류 여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게 중국 내에 있는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한 적이 있다고

〈표 8〉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빈도수	15	38	53
비율	28.3%	71.7%	100.0%

응답한 비율이 28.3%이며 나머지 71.7%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국내 다른 지역의 조선족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6년도에 중국의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 등 5개 지역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세계한상연구단 조사(2006)에 의하면 연변(延邊)의 조선족기업은 응답자의 77%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심양(瀋陽)조선족 기업은 79%, 북경(北京)조선족 기업은 96%, 청도(靑島) 68%, 상해(上海) 78%로써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다는 응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조선족기업들은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다른 지역의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동북 3성 조선족 가운데 흑룡강성은 유난히 한국에 대한 애증이 많은 것이다. 이곳의 조선족들은 한국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아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방문으로 친밀감은 많이 높아졌지만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이 주로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등 흑룡강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진출하자 기대심리 박탈현상을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의 수출과정에서 사기로 인해 조선족의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는 것이 흑룡강성 조선족사회의 일반적인 기류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보기로 한다.

(2)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복수응답)

〈표 9〉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복수응답)

구분	원재료, 제품조달	투자 및 자본조달	기술제휴	사업정보 교환	판로개척	합자,합작	기타	계
빈도수	2	3	7	4	8	2	3	24
비율	8.3%	12.5%	29.2%	16.7%	33.3%	8.3%	12.5%	100.0%

중국내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게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조선족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판로개척에 대해서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으며(33.3%), 다음으로는 기술제휴(29.2%)와 사업정보교환(16.7%)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에 조사된 세계한상연구단조사에 의하면 중국 5개 지역의 조선족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내용 1순위로는 판로개척(39%)이며 다음으로는 원재료·제품조달(23%)과 사업정보교환(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비교에 의하면 연변(延邊)의 조선족기업은 사업정보교환이나 판로개척을 그리고 심양(瀋陽)과 북경(北京)의 조선족기업은 판로개척을, 청도(靑島)나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은 원재료나 제품조달을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결과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조선족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내용으로써 판로개척과 기술제휴, 원재료나 제품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호협력이나 교류성과

〈표 1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성과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빈도수	0	1	7	5	2	15
비율	0.0%	6.7%	46.7%	33.3%	13.3%	100.0%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에게 교류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46.6%가 만족(만족 33.3%, 매우만족 13.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5개 지역 조선족기업이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시 어느정도 만족하였는지에 대한 교류성과를 조사한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와의 비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세계한상연구단 조사에 의하면 중국 5개 지역 조선족기업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결과 61%가 만족(만족 53%, 매우만족 8%)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별 비교에 의하면 연변(延邊)의 조선족기업은 55%가 만족(만족46%, 매우만족 9%)하였으며 심양(瀋陽)은 81%(만족 76%, 매우만족 5%), 북경(北京) 69%(만족 55%, 매우만족 14%), 청도(靑島) 47%(만족 43%, 매우만족 4%), 상해(上海) 54%(만족 51%, 매우만족 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5개 지역 조선족기업 중 심양(瀋陽)의 조선족기업이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시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심양(瀋陽)에 한국주가 있음으로써 심양(瀋陽) 조선족기업과 심양(瀋陽)진출 한국기업 간에 화합과 상생 마인드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이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교류의 빈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28.3%) 교류의 성과 또한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에서 나타난 중국 5개 지역의 조선족기업보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46.6%)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과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 간의 상생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4)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표 11>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상호협력이나 교류 필요성을 못느낌	신뢰할만한 기업이 없음	조선족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하는 것이 불편함	경쟁업체 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
빈도수	15	1	0	0	20	2	38
비율	39.5%	2.6%	0.0%	0.0%	52.6%	5.3%	100.0%

설문대상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중,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다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71.7%)에게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를 물었다. 왜냐하면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에서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을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연변(延邊) 23%, 심양(瀋陽) 21%, 북경(北京) 4%, 청도(靑島) 32%, 상해(上海) 22%의 조선족기업이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71.7%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다른 5개 지역의 조선족기업과 정반대의 응답결과가 나와서 그 이유가 주목된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52.6%) 또는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필요성을 못느낌(39.5%) 등으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흑룡강성 진출 한국투자기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과 둘째로는 모국인 한국에 대한 좋지 아니한 인상

때문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는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필요성을 못 느낌으로써 방관하고 있지 않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

〈표 12〉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

구분	상호간 정보제공과 적극협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활성화	상호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길러야함	중국주재 한국공관의 역할기대	기업관 상품전시회 개최	계
빈도수	31	36	17	16	9	109
비율	28.4%	33.0%	15.6%	14.7%	8.3%	100.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게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활성화방안 첫째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활성화(33.0%)이며 다음으로는 상호간 정보제공과 적극협조(28.4%) 그리고 상호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길러야함(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하기 원하며 또한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경쟁을 배제하고 상생의 마인드를 기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에 조사된 세계한상연구단조사에 의하면 연변과 청도의 조선족기업은 한국투자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상호간 정보제공과 적극협조를 들었으며(연변(延邊) 60%, 청도(靑島) 53%) 심양(瀋陽)과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활성화에 의하여 상호간 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를 원하며 북경(北京)의 조선족기업들은 활성화 방안으로써 상호 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길러야 함(북경(北京) 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우나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선족기업과 한국투자기업 간에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밑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경쟁보다는 상생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2)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1) 상호협력이나 교류 여부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에게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1.5%로써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58.5%)보다 응답률이 더 적었다. 이를 2006년도에 조사한

〈표 13〉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빈도수	22	31	53
비율	41.5%	58.5%	100.0%

〈동북아연구〉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6년도에 중국 5개 지역의 조선족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변(延邊)과 청도(靑島)의 조선족기업이 가장 높았으며(연변(延邊) 79%, 청도(靑島) 70%) 북경(北京)과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이 가장 낮았다(북경(北京) 28%, 상해(上海) 43%).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연변(延邊)의 경우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 또한 가장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도(靑島)의 경우는 한중수교이후 한국투자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6,000여개 정도)해 있음으로써 중국의 다른 지역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교류가 심양(瀋陽)의 조선족기업보다 낮는데(심양(瀋陽) 51%, 흑룡강성(黑龍江省) 41.5%) 이는 동북 3성 중 흑룡강성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양(瀋陽)처럼 ‘한국주’가 덜 활성화됨으로써 한국과의 접촉빈도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복수응답)

〈표 14〉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복수응답)

구분	원재료, 제품조달	투자 및 자본조달	기술제휴	사업정보교환	판로개척	합자, 합작	계
빈도수	7	2	8	5	11	4	37
비율	18.9%	5.4%	21.6%	13.5%	29.7%	10.8%	100.0%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게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에 의하면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 1순위로써 판로개척(29.7%)을 들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술제휴(21.6%)와 원재료·제품조달(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지역별 비교에 의하면 연변(延邊)과, 심양(瀋陽), 청도(靑島),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 1순위로써 「원재료·제품조달」을 들었으며 북경(北京)의 조선족기업들은 「판로개척」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3) 상호협력이나 교류성과

〈표 15〉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성과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빈도수	0	1	13	6	2	22
비율	0.0%	4.5%	59.1%	27.3%	9.1%	100.0%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에게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36.4%(만족 27.3%, 매우 만족 9.1%)로써 다른 지역 조선족기업과의 비교에 의하면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06년도의 세계한상연구단조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변(延邊)조선족 기업의 경우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성과를 보면 50%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심양(瀋陽) 80%, 북경(北京) 75%, 청도(靑島) 45%, 상해(上海) 77%의 비율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의 5개 지역 중 심양(瀋陽)지역 조선족기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는데(80%), 이는 중국 조선족 집거지 중 심양(瀋陽)지역의 조선족기업이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성장에 의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첫째, 한국기업과의 교류가 많지 않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하더라도 다른지역(예:심양(瀋陽))처럼 상호 원활한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류의 성과도 만족스럽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흑룡강성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및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변경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표 16〉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

구분	상호협력이나 교류 필요성을 못 느낌	신뢰할만한 기업이 없음	조선족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하는 것이 불편함	경쟁업체 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음	계
빈도수	14	2	0	0	15	31
비율	45.2%	6.5%	0.0%	0.0%	48.4%	100.0%

설문에 응한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 중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다는 58.5%의 조선족기업에게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를 물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다른지역 조선족기업들에 비하여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는 이유 1순위는 특별한 이유 없음(47.4%)이며 다음으로는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필요성을 못느낌(4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응답결과를 놓고 볼 때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한 한국에서 취업하고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하고 교류하는 다른지역의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지리적 위치상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으로써 한국에 있는 기업과 특별한 이유 없이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

<동북아연구>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

<표 17>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

구분	온라인상의 한상네트워크 구축	한국상회등을 통한 한국기업의 정보제공 및 홍보	상호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길러야함	한국정부의 중국조선족기업을 위한 우대정책	기타	계
빈도수	14	25	22	20	0	81
비율	17.3%	30.9%	27.2%	24.7%	0.0%	100.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게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1순위로써 첫째, 한국상회등을 통한 한국기업의 정보제공 및 홍보(30.9%)이며 다음으로는 상호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길러야 함(27.2%)과 한국정부의 중국 조선족기업을 위한 우대정책(24.7%)이며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한상네트워크 구축(17.3%)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조직인 한국상회 등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며 또한 비즈니스 상에서 상호간의 경쟁보다는 상생의 마인드를 기르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선족기업들이 수출이나 수입 및 기술도입이나 투자 시 우대정책을 펼쳐주기를 원하며 최종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인 한국과 그리고 재외 동포들과의 온라인한상네트워크 상에서 비즈니스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에게 중국기업(한족 등 기업, 조선족기업 및 화인기업 제외)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에 관한 내용을 설문하였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이 중국기업과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호협력이나 교류의 1순위로는 판로개척(50.9%)이며 다음으로는 원재료·제품조달(49.1%)과 사업정보교환(43.4%), 기술제휴 및 합자·합작(20.8%), 투자 및 자본조달(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중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구분	중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있다		없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원재료·제품조달	26	49.1%	27	50.9%
투자 및 자본조달	9	17.0%	44	83.0%
기술제휴	11	20.8%	42	79.2%
사업정보교환	23	43.4%	30	56.6%
판로개척	27	50.9%	26	49.1%
합자·합작	11	20.8%	42	79.2%

한편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이 중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없거나 부진한 순위를 보면 1순위로는 투자 및 자본조달(83.0%)이며 다음은 기술제휴와 합자·합작(79.2%), 사업정보교환(56.6%), 원재료·제품조달(50.9%), 판로개척(49.1%)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잘 안되거나 부진한 분야는 투자를 하거나 자본을 조달할 때 가장 어려우며 다음으로는 합자나 합작 또는 기술제휴 시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2006년도에 중국 5개 지역, 즉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 세계한상연구단조사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세계한상연구단조사에 의하면 중국조선족기업이 중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가 가장 잘되고 있는 분야는 사업정보교환(30%)과 판로개척(27%)이며 반대로 가장 부족한 분야는 투자 및 자본조달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연변(延邊)과 심양(瀋陽),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은 사업정보교환 측면에서 잘되고 있으며(연변(延邊) 24%, 심양(瀋陽) 34%, 상해(上海) 35%) 청도(靑島)의 경우는 원재료 제품조달 측면에서(36%) 그리고 북경(北京)은 판로개척 측면에서(39%) 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인 상기의 5개 지역과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비율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5개 지역 조선족기업과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분야 네트워크에 대한 비율을 보면 사업정보교환의 경우는 중국 5개 지역 조선족기업이 30%인 반면에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43.4%로써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이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판로개척의 경우도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는 27%이나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는 50.9%로써 중국기업과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가 다른 5개 지역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에 비하여 훨씬 원활하며 따라서 상호협력과 교류가 잘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동북 3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북진흥정책에 따른 경제프로젝트에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4)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외국기업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을 설문하였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들은 사업정보교환(24.5%)이나 판로개척(24.5%)에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가 가장 원활하며 다음으로는 원재료·제품조달(20.8%)

과 기술제휴(18.9%)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비교 연구한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세계한상연구단조사에 의하면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에 대한 상호협력과 교류내용을 표준한 결과에 의하

면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고 있으며 (25%) 다음으로는 사업정보교환과 원재료·제품 조달 비즈니스네트워크(2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중국 5개 지역 비즈니스네트워크 조사인 세계한상연구단조사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해외 외국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네트워크 내용에 대한 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표 19〉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해외 외국기업 (한국기업 제외)과의 상호협력이나 교류

구분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과의 교류			
	있다		없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원재료·제품조달	11	20.8%	42	79.2%
투자 및 자본조달	4	7.5%	49	92.5%
기술제휴	10	18.9%	43	81.1%
사업정보교환	13	24.5%	40	75.5%
판로개척	13	24.5%	40	75.5%
합자·합작	9	17.0%	44	83.0%

4.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특성과 활용방안

지금까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과 한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중국기업과 해외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와 2006년도에 중국 5개 지역인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의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와 대비하여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에 대한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즈니스상 상호협력이나 교류내용인 「판로개척」, 「원재료·제품조달」, 「사업정보교환」 순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특성

(1)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

〈표 20〉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

조사대상 기업 네트워크 대상 기업	흑룡강성 조선족기업(2009)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 조선족기업)
한국 투자기업	33.3%	39%
한국에 있는기업	29.7%	23%
중국 기업	50.9%	27%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	24.5%	25%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세계한상연구단조사(39%)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33.3%)보다 5.7% 더 높았으며 「한국에 있는 기업」과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29.7%)이 세계한상연구단 조사(23%)보다 6.7%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외 외국기업」과의 판로개척에 대한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24.5%)보다 세계한상연구단조사(25%)가 0.5% 더 높으므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기업」과의 판로개척 비즈니스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이 50.9%로써 세계한상연구단조사인 27%보다 무려 23.9%나 높게 나오므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 해외 외국기업과의 「판로개척」에 대한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가 비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데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네트워크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다른지역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와는 달리 이는 「판로개척」에 대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연구자의 예측과는 달리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 보다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더 강한연대가 되어있음이 분석되었다.

(2) 「원재료·제품조달」 비즈니스네트워크

〈표 21〉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원재료·제품조달」 비즈니스네트워크

조사대상기업 네트워크 대상 기업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2009)	세계한상연구단 조사 (2006)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 조선족기업)
한국 투자기업	8.3%	23%
한국에 있는 기업	18.9%	39%
중국기업	49.1%	24%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	20.8%	24%

「원재료·제품조달」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네트워크 대상 기업별로 비교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투자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8.3%에 불과했으나 세계한상연구단 조사(2006)에 의하면 23%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무려 14.7%나 차이가 났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18.9%이나 세계한상연구단조사(2006)에 의하면 39%로써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의 다른 지역 또는 동북 3성 중 가장 변방에 위치하여 있음으로써 한국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중국의 연해지역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투자기업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과도 네트워크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외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이 20.8%, 세계한상연구단조사가 24%로써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49.1%이며 세계한상연구단조사는 24%로써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흑룡강성이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때문뿐만 아니라 근접 지역에 러시아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중국의 동북진흥 정책에 편승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과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3) 「사업정보교환」 비즈니스네트워크

〈표 22〉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사업정보교환」 비즈니스네트워크

조사대상기업 네트워크 대상 기업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2009)	세계한상연구단 조사 (2006) (연변(延邊), 심양(瀋陽), 북경(北京), 청도(靑島), 상해(上海) 조선족기업)
한국 투자기업	28.3%	47%
한국에 있는 기업	13.5%	37%
중국기업	43.4%	30%
해외 외국기업(한국기업 제외)	24.5%	24%

「사업정보교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대상 기업인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 비율은 28.3%이며 세계한상연구단조사의 네트워크 비율은 47%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 비율이 세계한상연구단 조사비율의 2분에 1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기업」의 경우도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13.5%, 세계한상연구단 조사는 37%로써 무려 23.5%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다른지역의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에 비하여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다. 한편 「해외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흑룡강성이 러시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

아와의 교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이다. 즉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우는 43.4%이고 세계한상연구단조사는 30%로써 약 13.4%의 차이가 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리적인 여건과 다른지역의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반면에 중국기업과는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 동북 3성 진흥정책에 의한 진출 시 중국기업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활용방안

중국 동북 3성은 계획경제시대에 경제성장의 중심이었으나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중심이 동남 연해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심각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 3성을 중국의 4대 경제지대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아래 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흑룡강성은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또한 한국은 흑룡강성의 2위 무역 상대국으로써 수출입 총액만도 5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이 동북진흥정책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나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72년부터 일·중경제협회를 설립하여 동북진흥정책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중민간협의회¹⁴⁾가 있을 뿐이며 중국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으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에 편승하거나 중국내수시장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과 강한연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 및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외국기업과는 중간연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과의 강한연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 동북

14) 한중민간경제협의회는 1992년 시작된 양국 간 공식 민간경제협력기관으로써, 최근에도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 한국 코트라에 해당)와 공동으로 한중합동회의 등을 개최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중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회의는 개최기간 동안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중 민간경제인 협력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또한 대표적인 민간교류채널인 한중우호협회나 한중친선협회에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투자설명회, 정부인사초청 간담회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연관된 교류가 비교적 많으나 이것이 동북 3성과의 협력을 위해 특별히 조직된 활동은 아니다.

3성의 진흥정책에 따른 경제개발프로젝트 진행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편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중국내수시장 진출시 특히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시장 진출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정부 및 한족기업들과의 경제비즈니스 및 내수시장 확장을 위한 정책수립 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 3성이나 흑룡강성에 본사를 둔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유치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체결 및 기업유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흑룡강성은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또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중 대 러시아 무역에 관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 등이 러시아에 수출·수입·투자 등 거래를 하거나 자원확보를 위한 진출 필요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기업 및 러시아 기업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 모국인 한국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

IV. 요약 및 결론

중국의 동북지방은 20세기 중국공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경제의 중심이 동남연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최근까지 이 지역이 방치된 상태였는데 그동안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심각한 지역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 3성을 중국 제4의 경제성장 중심의 축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북 3성 중 흑룡강성은 대 러시아 무역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또한 한국은 흑룡강성의 2위 무역 상대국으로써 수출입 총액만도 5억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흑룡강성에는 약 4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기업은 1,200여개, 조선족기업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2,000여개 정도가 기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흑룡강성 한인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하얼빈시(哈爾濱市), 목단강시(牡丹江市) 등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5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제시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세계한상연구단조사(39%)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33.3%)보다 5.3% 더 높았으며 「한국에 있는 기업」과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29.7%)이 세계한상연구단 조사(23%)보다 6.7%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외 외국기업」과의 판로개척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24.5%)보다 세계한상연구단조사(25%)가 0.5% 더 높았다. 그러나 「중국기업」과의 판로개척 비즈니스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이 50.9%로써 세계한상연구단조사인 27%보다 무려 23.9%나 높게 나오므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원재료·제품조달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네트워크 대상 기업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투자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8.3%에 불과했으나 세계한상연구단 조사에 의하면 23%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비하여 무려 14.7%나 차이가 났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도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18.9%이나 세계한상연구단조사에 의하면 39%로써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한편 「해외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이 20.8%, 세계한상연구단조사가 24%로써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49.1%이며 세계한상연구단조사는 24%로써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셋째, 사업정보교환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대상 기업인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 비율은 28.3%이며 세계한상연구단조사의 네트워크 비율은 47%로써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비즈니스네트워크 비율이 세계한상연구단 조사비율의 2분에 1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기업」의 경우도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13.5%, 세계한상연구단 조사는 37%로써 무려 23.5%나 차이가 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이다. 즉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네트워크가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우는 43.4%이고 세계한상연구단조사는 30%로써 약 13.4%의 차이가 난다.

한편,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활용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과의 강연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 동북 3성의 진흥정책에 따른 경제개발프로젝트 진행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편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중국내수시장 진출 시 특히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시장 진출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정부 및 한족기업들과의 경제 비즈니스 및 내수시장 확장을 위한 정책수립 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 3성이나 흑룡강성에 본사를 둔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유치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체결 및 기업유치에 적용할

〈동북아연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흑룡강성은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또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중 대 러시아 무역에 관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간연대의 네트워크 수준이기 때문에 강한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흑룡강성 조선족기업과 한국투자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서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과 매개역할로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북 3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과 강한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흑룡강성의 조선족기업에 대한 단행본이나 논문 등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흑룡강성 조선족기업 네트워크의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참여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흑룡강성과의 수출, 수입, 투자나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거나 확장하는데도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설문조사 설계 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에 대한 정확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흑룡강성 조선족기업협회 등에서 발간된 자료를 참고하여 임의로 업종별, 지역별 설문조사 샘플수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성과 아울러 차후에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한 차원 높은 연구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LG경제연구원, 2004.
김기석 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산업경제』, 민족문화학술총서2,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김상철·장재혁, 『연변과 조선족』, 서울 : 백산서당, 2003.
김시중, “재중동포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세계경제』, 서울 : 국제경제연구소, 2003.

- 김익수,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_____, 『중국투자론』, 서울 : 박영사, 1999.
- _____, 『중국시장마케팅』, 서울 : 박영사, 2004.
- 노철화·김창수·서석홍, 『중국기업의 소유형태별 경영특성』, 서울 : 집문당, 1998.
- 류충걸·김석주·김화, 『흑룡강성 조선족 인구나 경제』,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8.
- 민유성, 『중국 동북 3성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사례』, 한국산업은행 심양사무소, 2009.
- 박승헌·박창걸·현동일·이종림, 『연변경제 형세분석과 예측』, 연변 : 연변대학출판사, 2003.
- 박종국, 『중국 경제의 2010년 동향과 2011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11.
- 오세철·박현준·정승화, “중국 사회주의 기업의 구조변화”, 『경영학 연구』 28권 4호, 한국경영학회, 1999.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이근·한동훈, 『중국의 기업과 경제』, 서울 : 박영사, 2002.
- 이길웅·현동일, 『연변경제발전론』, 연변 : 연변대학출판사, 2003.
- 이장섭,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1호, 2011.
- 이장섭·임채완 외, 『중국조선족기업의 경영활동』, 서울 : 북코리아, 2006.
- 이종림·심만근·임금숙, 『연변의향형 경제론』, 연변 : 연변대학출판사, 2003.
- 이진산,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하얼빈 :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 임채완·이장섭 외, 『중국조선족기업의 네트워크』, 서울 : 북코리아, 2007.
- 장상해, “中 동북진흥, 한국에 기회인가?”, 『China Observer Weekly』 72호, 2005.
- 정구현·엄구호, 『중국의 시장과 기업』, 서울 : 나남출판사, 2000.
- 최우길, “중국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함의”, 『한국동북아 논총』 제 15권 4호, 2010.
- 최웅용·임채완·이장섭 외, 『중국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 서울 : 집문당, 2005.
- 흑룡강성조선족상공회, 『흑룡강조선족기업가 : 풍채』, 하얼빈 : 흑룡강신문사, 2010.
-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80, 1990, 1993, 2000.
- 『吉林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80, 1990, 2000.
- 『沿邊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80, 1990, 2000, 2003.
- 『哈爾濱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3.
- 『沈陽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2.
- 『北京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3.
- 『青島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3.
- 『黑龍江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동북아연구〉

《Abstract》

Features and Utilized programs of Korean-Chinese Business Networks in Heilongjiang Province of China

Lee, Jang-Sub

The government of China has launched a policy to revitalize the economy of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Through exhib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and the entrance of Korean business to the market of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this paper tries to grasp the features of Korean Chinese business network in Heilongjiang, and then to investigate the current utilization of networks. First, the most frequent utilized network for Korean Chinese is based on the geographical, business and matter relationship. Second,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n Chinese business and Korean business invested in Heilongjiang is lower than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n Chinese business in Heilongjiang and Korean Chinese business in other regions of China, and the survey result also shows that the cooperation content between Korean Chinese business and Korean business in Heilongjiang is mainly in the order of developing sales channel, technique cooperation and then business information exchange. Third,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n Chinese business in Heilongjiang and the enterprise in Korea mainly lies in technique cooperation and the purchasing of raw and parts materials, and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cooperation shows that the satisfaction rate was 36.4%, which is lower than the cooperation of Korean Chinese business in other regions of China. Fourth, depending on the solid construction of Korean Chinese business network, there is possibility for Korean business to take part in the program of developing the northeast three province, meanwhile enlarge Korean business market in China.

In spite of varied limitations, this paper through surveying the network status of Heilongjiang, exhibits a great significance of the utilized networks in developing the northeast of China.

Key Words : Korean Chinese Business in Heilongjiang, Revitalization Policy of Northeast China, China Business, Korean Investment Business

투고일 : 2011.6.20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